

건설 시추정보 활용 전문가 토론회 -시추정보 및 지하정보 활용방안-



장용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지반정보 센터장
(wkddydm@kict.re.kr)



이규환

건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khlee@konyang.ca.kr)

1. 들어가며

2012년 11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건설 시추정보 활용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추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과 전문가 포럼 결성과 관련하여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특별히 관·산·학·연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시추정보와 관련한 정책분야, 연구분야 및 실제 사업분야에 대한 발표와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사진 1. 건설 시추정보 활용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2012년 11월23일)

2. 건설 시추정보 전산화 사업 및 활용 활성화 방안

“건설 시추정보 활용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우선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지난 10여 년간 수행하고 있는 건설 시추정보 전산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소개, 시추정보 유통프로세스와 함께 시추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소개되었다.



사진 2. 시추정보 전산화 사업 및 활용 활성화 방안 발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장용구 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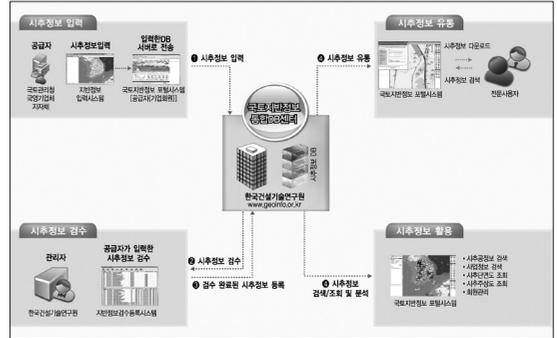


그림 1. 건설 시추정보 유통프로세스



사진 3. 지반정보 획득 및 활용현황 발표
(하라엔지니어링 최성순 전무)

지하정보와 관련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토론회의 주요내용은 시추정보 신뢰성 확보방안, 시추정보 활용에 대한 법제화 방안, 지반정보 포털시스템 개선방안 및 지하공간정보의 통합 활용방안 등에 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본 토론회에서는 시추정보 활용성 증대를 위한 신뢰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에서의 시추정보 활용 기대, 일본사례소개를 통한 향후 충분한 시추정보 구축에 따른 활용성 극대화 기대, 시추정보 제공에 따른 국가차원의 지반조사사업체와의 상생방안 수립 등에 대한 질의와 건설 시추정보 전산화 사업의 기대감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3. 지반정보 획득 및 활용 현황

또한 지반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라엔지니어링의 최성순 전무님께서서는 지반정보의 획득 방법 및 실제적인 활용 현황에 대하여 소개하였으며 특히, 현재 지반정보 획득 시 애로사항과 실제 지반정보 활용 시 문제점들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을 발표하였다.

4. 토론회 주요 내용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의 장용구 센터장과 한라엔지니어링의 최성순 전무의 발표 후에 시추정보 및

5. 시추정보 전문가 포럼 결성

이번 토론회의 마지막 토의내용으로 향후 시추정보 및 지하정보와 관련한 범국가적인 활용 활성화 방안 모색과 함께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시추정보 전문가 포럼 결성을 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 “시추정보 전문가 포럼” 결성을 위해 사전준비와 과정 그리고 참여 독려를 위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었으며, 특히 포럼 결성을 위한 창립 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회 개최에 관하여 의견이 논의되었다.

1차 창립준비위원회는 한국지반공학회 지반조사위



사진 4. 시추정보 및 지하정보 관련 토론회 개최 모습

원회 모임(12월 14일)과 함께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2013년부터 “시추정보 전문가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포럼 창립과 관련하여 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참석자들은 자동적으로 포럼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6. 결론

금번 개최된 “건설 시추정보 활용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는 실제 지반조사를 수행하는 지반조사 전문회사, 지반조사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지반공학회의 지

반조사위원회, 생산된 지반조사성과를 전산화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국토해양부(국토지반정보 통합DB 센터) 및 기타 관·산·학·연의 시추정보와 관련된 인원이 다수 참여하여 생산에서 활용까지 이르는 시추정보와 관련된 모든 전문가 그룹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특히, 평소에는 접할 수 없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분야 별로 발생하는 애로 및 개선사항의 공유와 시추정보의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제적인 의견수렴 및 교감을 이룰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였으며, 향후 포럼 결성을 통한 지속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도모한 것이 본 토론회의 가장 큰 성과라 판단된다.